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우병준·박혜진

요약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 농업·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답함.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답함.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도시민의 절반 이상(53.3%)이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동의함.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음.

도시민의 41.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개선

- 도시민 응답자 41.4%는 향후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보다 6.8%p 증가하였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가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은 이러한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60.9%)는 답변이 전년의 42.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4.9%)는 답변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불만족한다'(24.4%)는 답변보다 더 많고, 농사 수입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12.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 여건 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2020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

- 도시민의 60.4%는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영농 방식과 소비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동의'하는 응답이 다수임.

01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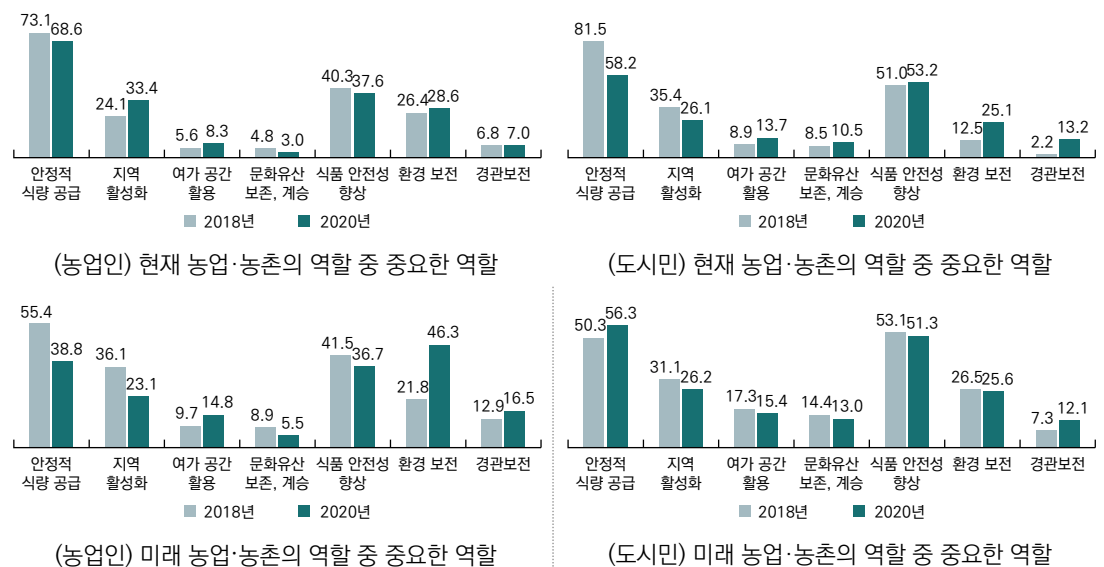
1.1.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농업·농촌의 다양한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안정적 식량 공급'이라는 응답이 농업인 68.6%와 도시민 58.2%를 차지함.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농업·농촌의 기능 중 현재 기능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미래 기능에 대해 도시민이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농업인은 '환경 보전', '안정적 식량 공급', '식품 안전성 향상'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1〉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중복응답, %)



주: 무응답과 '모름', '기타'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인식조사(2020).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인식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6.2%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답변하고, 9.2%는 '가치가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라고 답변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9년 64.2%보다 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9년 30.4%에서 4.2%p 증가한 34.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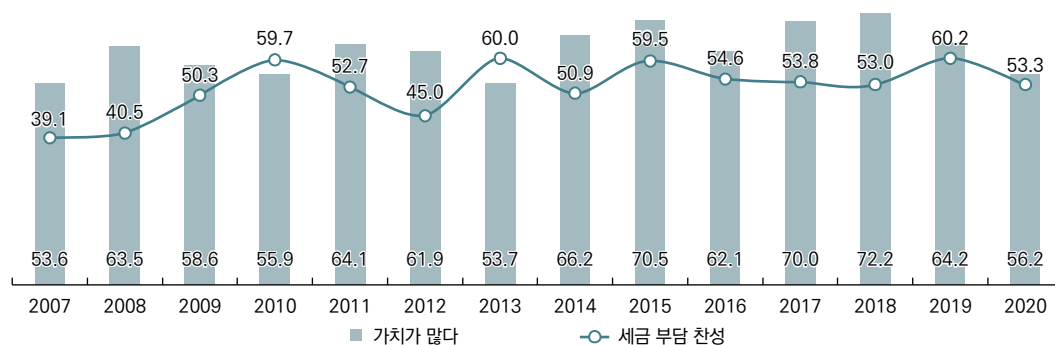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보전을 위한 납세자의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53.3%는 '찬성'하고 37.1%는 '반대'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대한 '찬성' 답변은 2019년 60.2%보다 6.9%p 감소하였으며, '반대' 답변은 2019년 36.1%보다 1%p 증가함.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와 추가 세금 부담에 '찬성' 의견 간의 격차는 2019년 4.0%p에서 2020년 2.9%p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이 같은 격차는 2016년 7.5%p, 2017년 16.2%p, 2018년 19.2%p까지 크게 증가하다가 2020년 2.9%p까지 감소함.

〈그림 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도시민의 가치 판단 및 추가 세금 부담 여부의 연도별 변화(%)



주: '가치가 많다'는 '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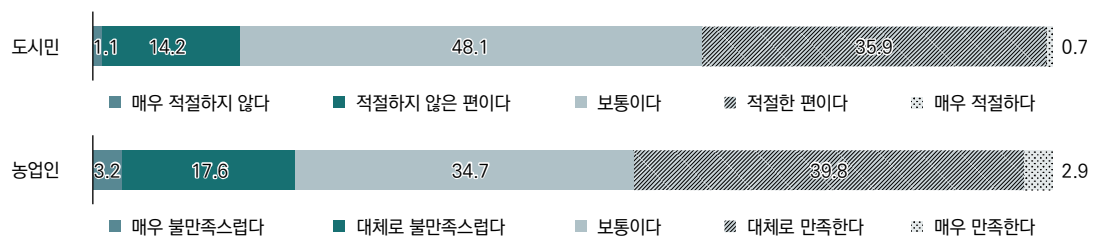
1.3. 공익직불제에 대한 인식

공익직불제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다수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도시민의 36.6%가 '적절하다'고 답변, '부적절하다'는 답변(15.3%)의 2배 이상이고,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해 농업인 42.7%가 '만족한다'고 답변, '불만족한다'는 답변(20.8%)의 2배 이상 달함.

-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도시민 36.6%는 '적절하다', 48.1%는 '보통이다', 15.3%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함. 공익직불제 내용에 대해 농업인 42.7%는 '만족한다', 34.7%는 '보통이다', 20.8%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함.

〈그림 3〉 공익직불제 도입과 그 내용에 의견(%)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다수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대폭 강화되어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도시민의 45.4%, 농업인의 4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부정적인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도시민 45.4%는 '적절하다', 11.4%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함. 농업인 45.4%는 '만족한다', 20.9%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함.

〈그림 4〉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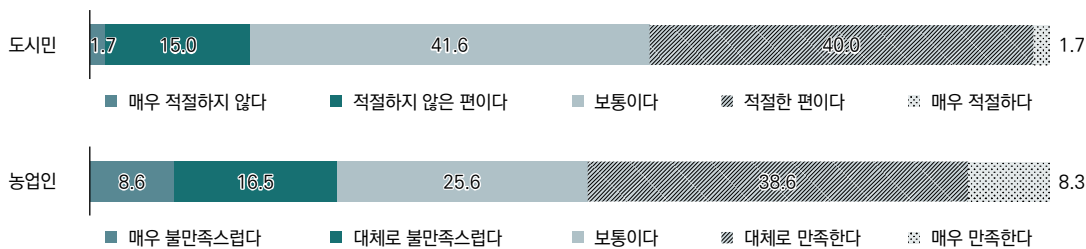
1.4.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정책에 대한 의견

소농직불금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에 긍정적 인식 다수

공익직불제에 소농 우대제를 도입하여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며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및 농업 외 소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상관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시민 41.7%, 농업인 46.9%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정책에 대해 도시민의 41.7%는 '적절하다', 41.6%는 '보통이다', 16.7%는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함. 농업인 응답의 46.9%는 '만족한다', 25.6%는 '보통이다', 25.1%는 '불만족한다'라고 응답함.

〈그림 5〉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에 대한 의견(%)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1.5. 시사점

농업·농촌이 제공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선택함. 그러나 농업·농촌의 기능 중 미래에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농업인은 도시민과 달리 환경 보전을 선택함. 이는 공익직불제의 시행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 역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에 대해 도시민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이를 지키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함. 특히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그 내용, 공익직불제의 준수사항 조건을 통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 강화, 소농직불금을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보전 등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이는 공익직불제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0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2.1.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도시민이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비중은 41.4%로 전년보다 증가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은 41.4%로 전년의 34.6%에 비해 6.8%p 증가하였고, '없다'는 응답은 52.1%로 전년의 59.3%에 비해 7.2%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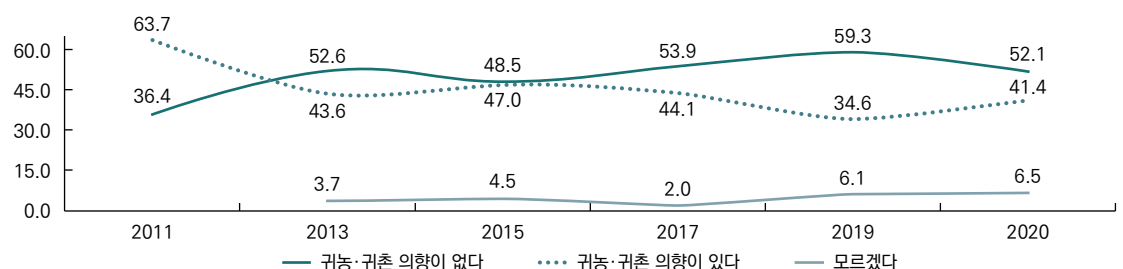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 자영업 종사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이는 도시지역에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주거비용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평가됨.

귀농·귀촌하고 싶은 이유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작년 46%보다 낮은 43.2%

귀농·귀촌 의향자는 그 이유로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43.2%),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0.5%(2019년에는 21.4%)를 차지함.

- 전년보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항목에의 응답 비중이 낮아진 반면, '농산물을 생산하여 안전한 식품을 자급하기 위해'와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항목에의 답변 비중은 전년보다 높아짐. 또한 '대규모 감염병(예: 코로나19)을 피해 저밀도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는 3.6%의 응답 비중을 보임.

〈그림 6〉 귀농·귀촌 이유의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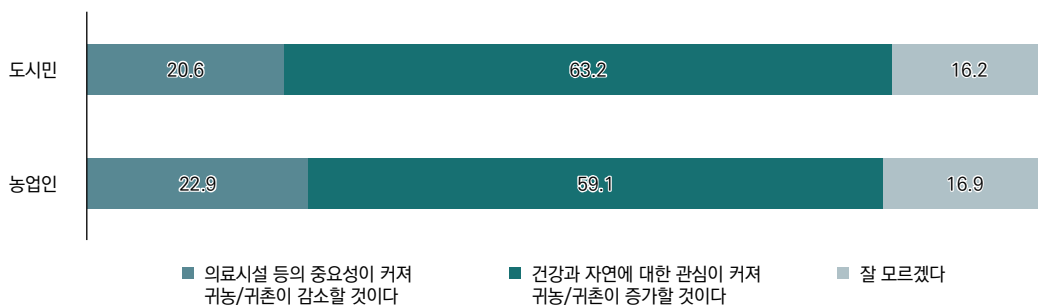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환경변화가 귀농·귀촌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귀농·귀촌이 증가'할 것이라고 도시민은 63.2%가 응답, 농업인은 59.1%가 응답함. 반대로 건강 때문에 의료시설 등의 중요성이 커져서 '귀농·귀촌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 20.6%, 농업인 22.9%로 더 낮게 나타남.

<그림 7>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환경변화가 향후 귀농·귀촌에 미칠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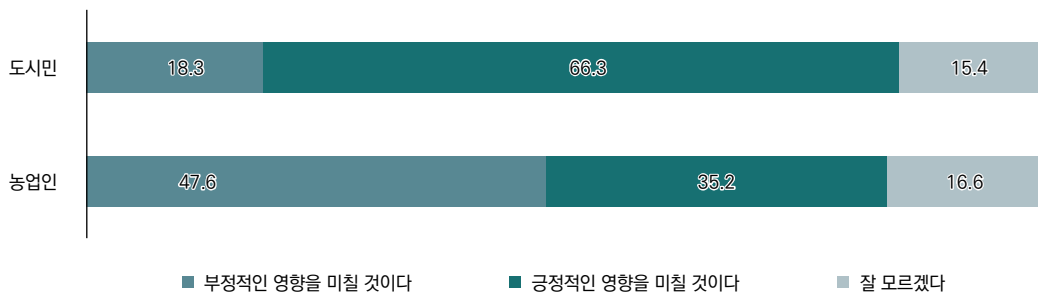
주: '무응답'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환경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엇갈려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도시민 66.3%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농업인 47.6%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높았음.

- 도시민의 응답은 긍정적인 평가(66.3%)가 부정적인 평가(18.3%)에 비해 매우 많지만, 농업인은 부정적인 평가(47.6%)가 긍정적인 평가(35.2%)보다 더 많음.

<그림 8>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환경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농촌에 미칠 영향(%)



주: '무응답'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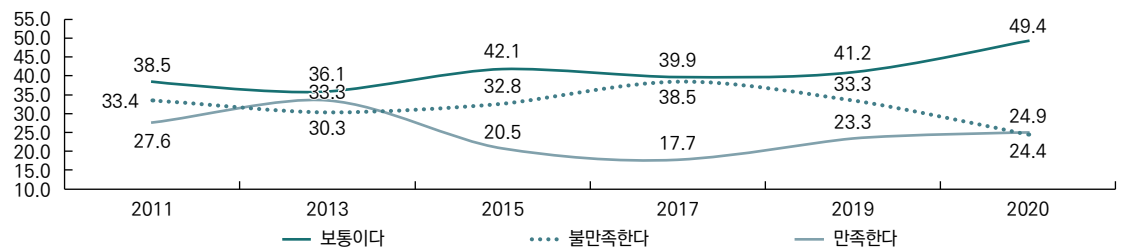
2.2.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는 24.9%로 전년보다 1.6%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24.4%로 전년보다 8.9%p 크게 감소하였음.

-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9%로 전년보다 0.7%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도 24.6%로 전년보다 3.5%p 감소하였음. 농업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2.4%로 전년보다 2.3%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1.0%로 전년보다 5.7%p 감소하였음.

〈그림 9〉 연도별 농업인 직업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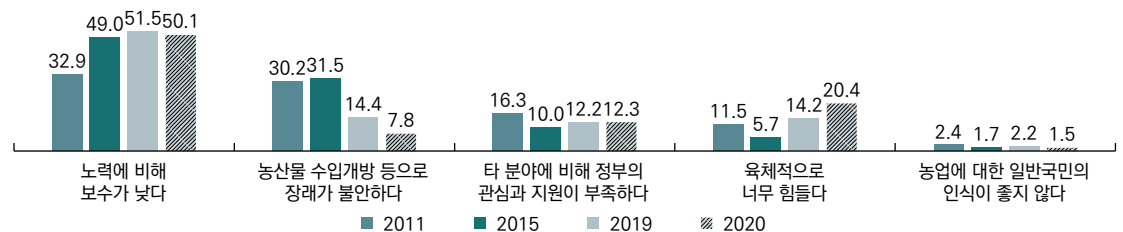


주: '만족한다'는 '매우 만족'과 '다소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 '매우 불만족'과 '다소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과반수인 50.1%이지만 전년보다 1.4%p 감소하였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20.4%로 전년의 14.2%에 비해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7.8%로 전년의 14.4%에 비해 감소함.

- 과거에 비해 2020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농업인의 고령화 심화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농업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10〉 연도별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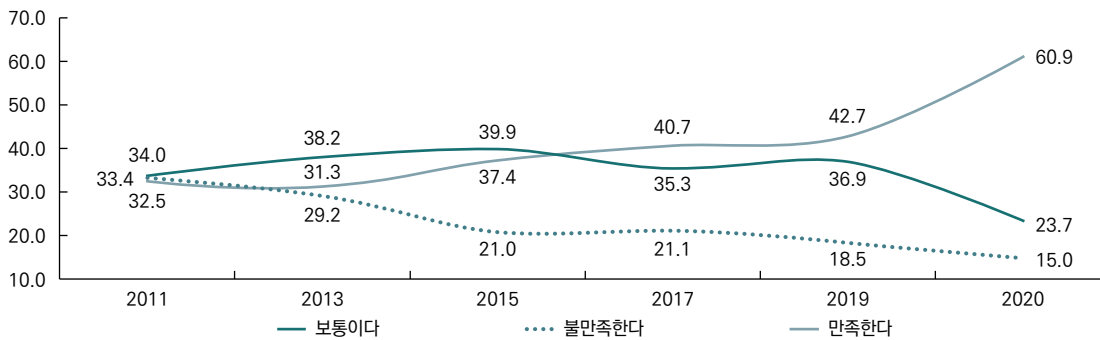
주: 무응답, '기타'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2.3. 농촌생활 만족도와 농업경영 위협 요인

2020년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는 60.9%로 전년보다 큰 폭 증가

농업인의 농촌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는 60.9%로 전년의 42.7%보다 큰 폭(18.2%p)으로 증가함.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는 15.0%로 전년의 18.5%보다 감소하였고 '보통이다'는 23.7%로 전년의 36.9%보다 많이 감소함.

〈그림 11〉 연도별 농촌생활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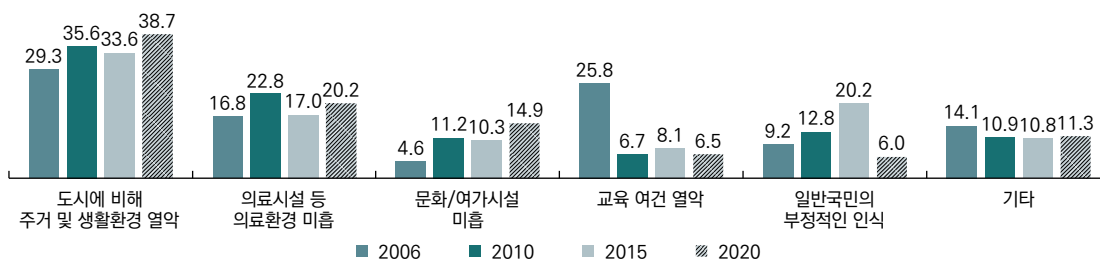


주: 만족한다'는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률의 합계이며, 불만족한다는 '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응답률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농촌생활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및 생활환경으로 농촌 지역재생이 중요

농촌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도시에 비해 주거 및 생활환경 열악'(38.7%)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의료시설 등 의료환경 미흡'(20.2%), '문화 및 여가시설 미흡'(14.9%), '교육 여건 열악'(6.5%) 순으로 응답함.

〈그림 12〉 농촌생활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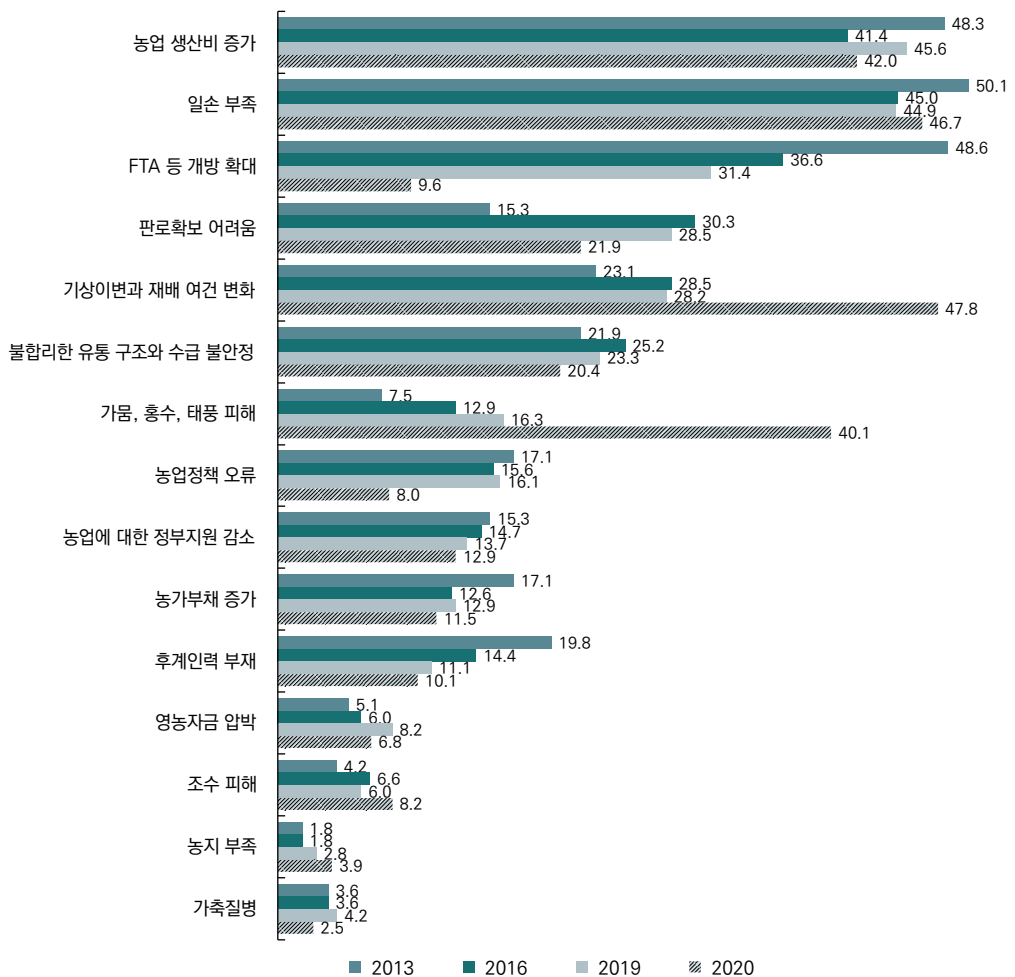
주: 무응답과 '모름' 응답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농업인은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로 응답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 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47.8%), '일손 부족'(46.7%), '농업 생산비 증가'(42.0%), '가뭄, 홍수, 태풍 피해'(40.1%) 순으로 응답함.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013년 이후 전년까지 주된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 '일손 부족', 'FTA 등 개방 확대' 등이 지적되었으나, 202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와 '가뭄/홍수/태풍 피해'가 주된 위협 요소로 새롭게 주목받고 'FTA 등 개방 확대' 응답 비중은 많이 감소함.
- 이는 2020년에 긴 장마 등 이상기후의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확보 부족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13>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복수응답, %)



주: 무응답, '기타'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각 연도).

2.4. 시사점

2020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도시지역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임.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농업경영에서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태풍과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위협 요소를 중요하게 인식함.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03

농업·농촌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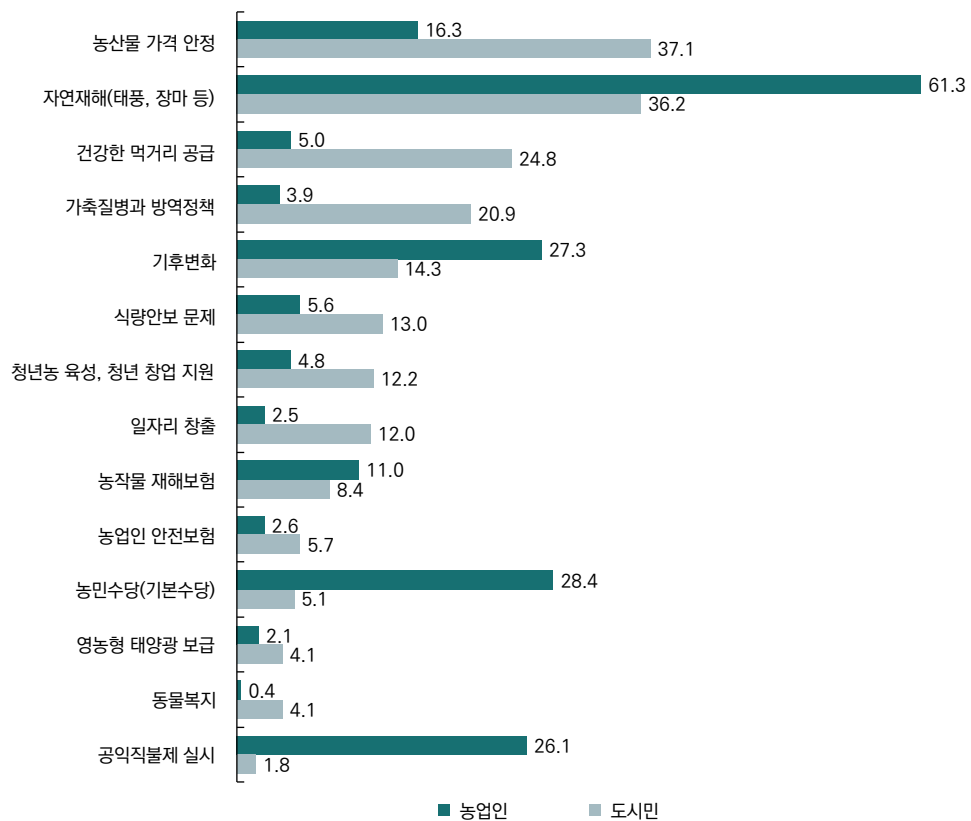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2020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응답

도시민은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이슈로 ‘농산물 가격 안정’(37.1%), ‘자연 재해’(36.2%), ‘건강한 먹거리 공급’(24.8%)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자연 재해’(61.3%), ‘농민수당(기본수당)’(28.4%), ‘기후변화’(27.3%), ‘공익직불제 실시’(26.1%) 등을 선택함.

- ‘자연 재해(태풍, 장마 등)’와 ‘기후변화’ 이슈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던 분야임.

〈그림 14〉 2020년 농식품 이슈 중 관심이 많았던 분야(중복응답,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3.2. 기후변화와 농식품

기후변화 발생과 농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도시민만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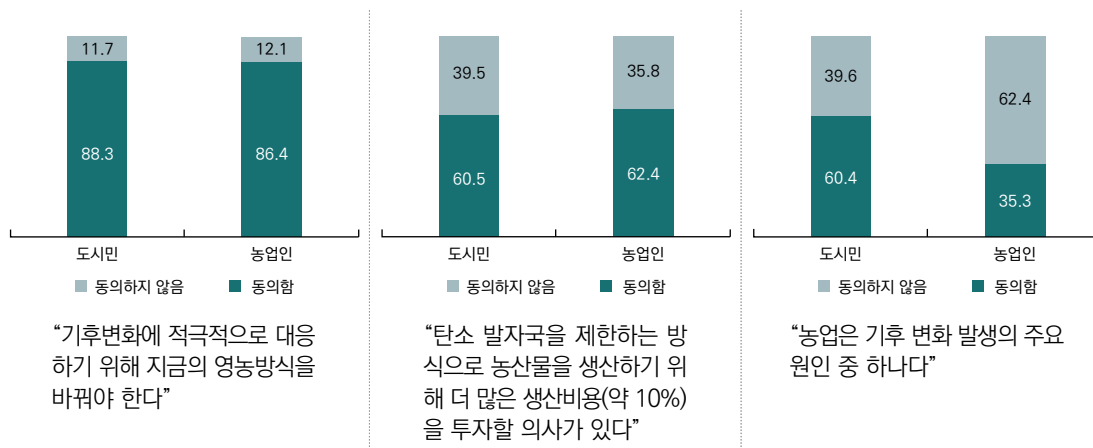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도시민의 답변은 60.4%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농업인의 답변은 62.4%로 서로 의견 차이가 크게 나타남.

기후변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영농 및 소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현재 영농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민 88.3%, 농업인 86.4%가 동의하여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보임.

- 탄소 발자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구매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의 과반수 이상인 도시민 60.5%, 농업인 62.4%가 동의함.

〈그림 15〉 기후변화와 농식품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주: 해외 조사 비교를 위해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2020. 10. 11.)의 문항을 이용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민의식조사(2020).

3.3. 시사점

2020년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관심을 동시에 받은 이슈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임. 특히 ‘기후변화’는 농업·농촌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구매행태 변화와 농업인의 영농 방식 변화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함.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발생으로 촉발된 건강과 자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부 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업인 1,1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621명을 대상으로 조사¹⁾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 고정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121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표본 추출방법	전국 읍면 농가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2019 국민의식조사.

〈관련 자료〉

EU. 2020. 10.11.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2020년

-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우병준, 박혜진)
- 제194호 귀농·귀촌 인구이동 동향과 시사점-2019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중심으로
(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정도채, 한이철)
- 제193호 코로나19 사태와 북한의 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최용호)
- 제192호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0년 농업부문 수정 전망(서홍석, 김충현, 김준호)
- 제191호 2020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김종인, 한은수, 은종호, 서강철)
- 제190호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박미성, 박시현, 이용선)
- 제189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서홍석, 순병민, 김충현)
- 제188호 코로나19와 농업 고용노동력(엄진영)
- 제187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 영향 및 전망(박성진, 박지원, 강두현, 안정욱)
- 제186호 2020년 10대 농정이슈(이명기 외)

2019년

- 제185호 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이정민, 우성휘, 이명기, 박혜진)
- 제184호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필요성과 도입 방안(김상호, 이계임, 임소영, 허성윤)
- 제183호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김종선, 이윤정, 조선미)
- 제182호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채광석, 김부영)
- 제181호 2019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국승용, 이형우, 윤종열,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 제180호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형우, 한봉희, 우병준, 박기환)
- 제179호 2013~2017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유찬희, 서홍석, 김태후)
- 제178호 양봉산업의 위기와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김창호, 우성휘)
- 제177호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송성환, 박혜진, 김용렬)
- 제176호 2019년 10대 농정 이슈(정민국 등)
- 제175호 농식품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현황과 시사점(이정민, 김창호, 김용렬)

2018년

- 제174호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문한필,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 제173호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 동향과 시사점(김상현, 임정빈)
- 제172호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의 영향과 전망(윤종열, 박지원, 신기석, 강두현)
- 제171호 MERCOSUR 농축산물 생산·교역 동향과 시사점(오새라, 조성주)
- 제170호 대체 축산물 개발 동향과 시사점(이정민, 김용렬)
- 제169호 2018 국내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정학균, 성재훈, 이현정)
- 제168호 2018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출하 및 가격 전망(이형우, 허정희, 한은수, 김종인, 은종호, 박기환)
- 제167호 농업자원 관리를 위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구축방안(성재훈, 조원주, 이현정)
- 제166호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김용욱, 성주인, 민경찬)
- 제165호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 농축산물(대두, 돼지고기) 수급 전망
(문한필, 전형진, 윤종열, 이형우, 박지원, 임채환, 한봉희)
- 제164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채광석, 이현정, 손학기)
- 제163호 한·EU FTA 발효 7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명수환, 유주영)
-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 제161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황의식 선임연구위원	061-820-2011	eshwang@krei.re.kr
내 용 문 의	우병준 선임연구위원	061-820-2378	bjwoo@krei.re.kr
발 간 물 문 의	성진석 책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95호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0. 12.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